

제17호·2016년 7월 20일

미래전략연구본부 | 국제물류연구실
총괄·감수 | 이 성 우 실장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동향

트랜스 컨테이너사, 컨테이너 Dry Port 건설사업 수주

- 트랜스컨테이너사가 블라디보스토크 근교 우글로바야(Uglovaya)역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 전용 Dry Port 건설을 맡게 됨
 - 현재는 준비조사단계이며, 실질적인 컨테이너 Dry Port 시공은 내년에 착수 할 예정임
- 우글로바야역 인근에 컨테이너 Dry Port를 건설하게 된 배경으로 페르바야 레치카(Pervaya Rechka)역의 처리능력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 또한 블라디보스토크항 인근에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어려움, 잦은 도로교통 마비, 정부의 잦은 화물차량 규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여겨지고 있음
 - 더 넓게 나아가 건설예정인 내륙 항만은 철도, 육로, 해상로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철도로 환적 하여 TSR을 통해 내륙으로 운송되는 물동량이 올해 1-5월동안 52,000TEU로 작년대비 10.8% 감소하였지만 6월 물동량은 전년도 대비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음
 - 6월의 물동량 증가세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경유하는 화물의 증가와 한국발 카자흐스탄으로의 폴리에틸렌류 운송 증가 등에 의해 이루어짐
 - 특히 트랜스 컨테이너사의 시장 점유율 및 운송 물동량은 올해 초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올해 1-5월 동안에는 물동량이 34.3%증가함(동 기간 물동량은 21,000TEU)
- 또한 루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을 통해 목재 및 산림 자원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컨테이너를 통한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예정인 Dry Port의 건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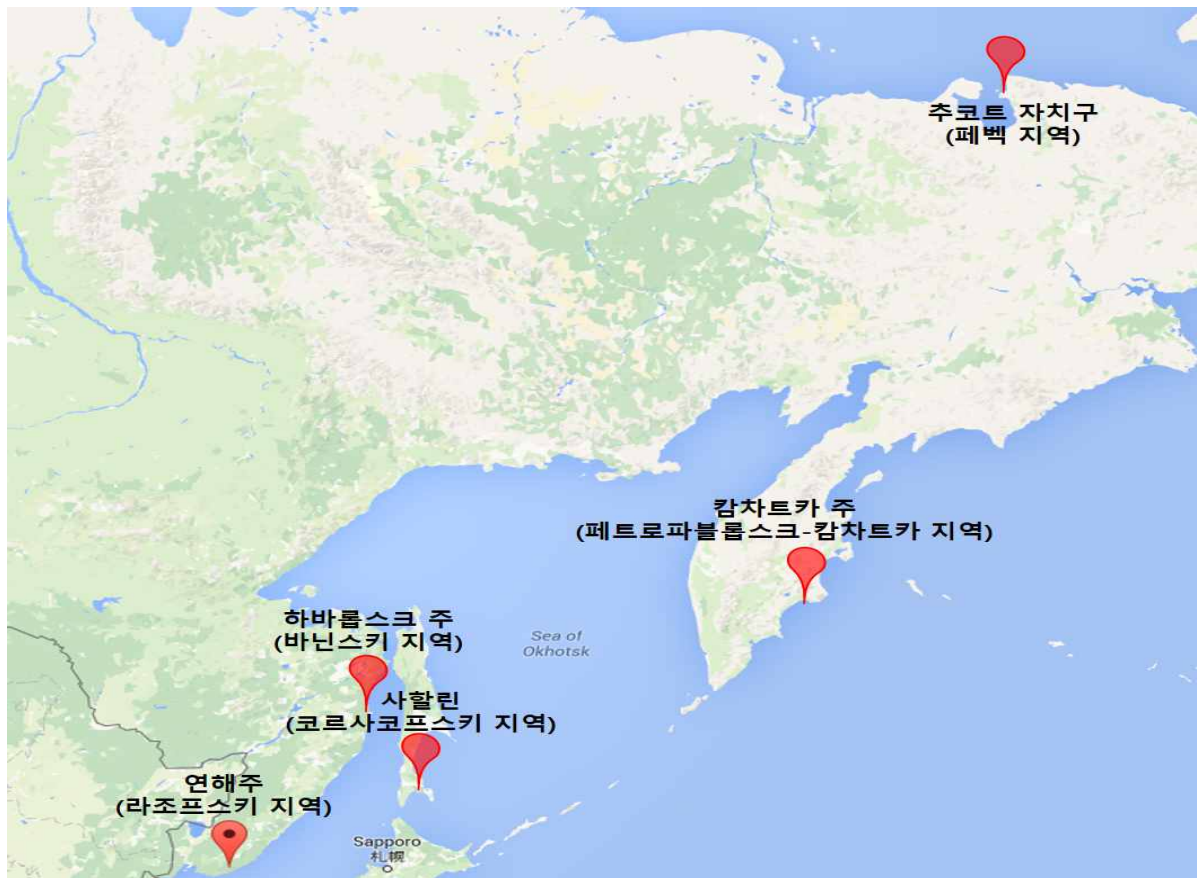
자료: <http://tass.ru/transport/3413936>(검색일: 2016년 7월 19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극동지역 자유항 지정 확대 예정



자료: Google 지도, KMI 재작성

- 러시아 상원회의는 기존에 이미 자유항으로 제정된 블라디보스토크 외에 하바롭스크, 캄차트카, 사할린, 추코트카 지역까지 자유항에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는 안을 상정함
- 이번에 제안된 안이 통과된다면 극동지역의 대표 항구 전체에 자유항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 안은 푸틴 대통령 지시로 극동개발부가 제안을 했으며, 자유항 운영이 적용되는 지역을 하바롭스크 주(바닌스키 지역), 사할린(코르사코프스키 지역), 캄차트카 주(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지역), 추코트스키 자치구(페벡 지역), 연해주(라조프스키 지역)로 확대할 전망이다



- 자유항 법의 확대 적용은 극동지역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임
- 자유항 법이 새롭게 적용된 항만들은 현재 투자 유치와 화물 운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안이 발효되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다수의 신규 투자 확대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항만의 경우 북극항로의 주요 기점이 되는 허브항 역할이 부각되어 투자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으나 대대적인 항만 부두시설 리모델링이 수반되어야 함도 강조되었음

자료: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granitsy_svobodnogo_porta_rashyrlis.html(검색일: 2016년 7월 19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